



해국 스님(총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한 번의 참기도 위해선  
만 번 헛질 해야”  
8면

#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금주의 법구-〈장로계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9월 9일) · 주간

대표인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12호 2014년 10월 2일 목요일

## 10월 서울은 ‘불교’로 물든다

서울시, 10월 10~12일 ‘2014 전통사찰 Week’ 개최

서울 전통사찰 58곳서 진행  
사찰 5곳서 무료 템플라이프  
10일 선포식... 곳곳서 행사  
“불교문화 향유층 확대 기대”

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행사다. 전통사찰 주간은 10월 10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선포식으로 시작되며 선포식 이후 서울 시내 전통사찰 58곳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로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짝 열린다.

만들기, 단청문양 팬던트 만들기, 전래놀이, 불교중앙박물관 ‘봉은사와 추사 김정희 특별전’ 관람 등이 진행된다. 이와함께 서울의 대표 사찰인 봉은사와 조계사는 불교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전통사찰 투어’를 진행한다. 사전 접수된 90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10일 봉은사 투어 후 조계사로 이동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선포식에 참여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SNS 홍보하면 푸짐한 상품이  
전통사찰 주간에는 행사에 참여한 내용을 SNS에 홍보하면 다양한 상품도 주어진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전통사찰 가Go! 인증샷 찍Go!’는 전통사찰 주간 동안 58곳의 전통사찰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증사진을 가지고 10월 12일 흥천사 회향식에 참여하면 합장주와 스마트폰 거치대 등 기념품을 제공한다.

가을이 찾아오는 10월, 서울 전역에서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불교문화 체험 기회가 마련된다. 서울시와 조계종 총무원과 전통사찰 보유 종단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2014 서울시 전통사찰 Week’를 실시한다.

특히 조계사·봉은사·화계사·금선사·묘각사 등 서울시내 템플스테이 사찰 5곳에서는 1일 사찰 체험 과정인 템플라이프가 무료로 진행된다. 선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박원순 서울 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내 주요 전통사찰 주지 스님들과 관광객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 진관사는 11일과 12일 오전 10시 중무형문화재 126호인 국행수륙재가 열리며 사찰순례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에게 연일밥 등 사찰음식을 제공한다. 진관사는 인근 삼천사와 함께 북한산 둘레길 9구간인 마실길을 걷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진관사와 삼천사 주변 약 2.5km를 문화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역사를 듣는 일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 접수한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 서포터를 대상으로 하는 ‘I Love Seoul, I Like Temple 스토리 콘서트’도 진행된다. 사전접수된 국제 대학생 팀이 전통사찰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동영상과 사진 등으로 SNS에 홍보하고, 이를 선정해 상금을 수여한다.

서울시는 2013년 6~9월 서울 전통사찰 58곳의 현황을 점검하고 요청사항을 청취해 △전통사찰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전통사찰 관광자원화 △전통사찰 시설정비 △전통사찰 제도적 기반 구축의 4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전통사찰위크는 전통사찰의 역사문화를 관광자원화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의 일환이다.

불교 체험 프로그램 ‘다채’  
먼저 전통사찰 주간에는 각 사찰에서 각종 투어 및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서울 조계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화축제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전래놀이 체험’을 진행한다. 종립학교 학생과 서울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은 지하

서울 흥천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경내 느티나무 광장에서 예로부터 불화를 제작해 온 흥천사 불화소를 개방해 불화장 스님과 함께 불화, 또는 단청을 직접 그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회향을 기해 12일 오후 3시 작은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모든 프로그램 체험은 전액 무료다.

조계종은 “이번 ‘2014 서울시 전통사찰 Week’를 계기로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청소년·외국인들의 활발한 참여로 불교문화를 이해하고 지지층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서울시 전통사찰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취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화포교, 스토리텔링·동선 활용부터”

조계종 포교원, 9월 23일 포교정책연찬회서 주장

문화의 시대에 걸맞게 현대인의 삶과 문화에 가깝게 다가가는 포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9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감성과 감동의 시대 문화포교를 말한다’를 주제로 제59차 포교정책연찬회를 열었다.  
이날 ‘사찰의 문화포교에 대한 제언과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지현 스님(월정사 교무국장)은 “오늘날의 관광사찰은 ‘수행’과 ‘입장료수입’이라는 두 가지의 상호순환된 양자를 모두 안고 가야하는 현실에 존재해 포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현 스님은 불교적 특성에 입각해 현대인에게 포교할 수 있는 방법은 ‘동선활용’과 ‘스토리텔링’이라

고 강조했다.  
스님은 “과거 승려들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진 넓은 영역의 사찰이 내방객들에게는 효율적인 동선구조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찰과 관련된 명확한 동선처리와 친절한 설명으로 사찰을 속속들이 둘러보고 알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교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지현 스님은 “현대에는 귀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시대”라며 “해리포터 시리즈가 인기를 얻을 수 있던 이유는 책이라는 문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미지의 시각화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사찰 또한 이미지와 문화유산을 시각화하는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 발제에 앞서 고영서 포교연구



조계종 포교원은 9월 23일 ‘감성과 감동의 시대 문화포교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포교정책연찬회를 개최했다.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  
사찰 이미지 시각화 필요”

실 선임연구원은 “문화포교의 지향과 종단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영서 연구원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법회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언급하며 “현대인들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주는 다양한 불교문화포교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적 정서’의 중요성도 강조한 그는 “불교의례와 음악도 현대인의 문화적 정서를 고려해 이 시대의 언어와 멜로디로 재창조돼야 한다”며 “특히 일상 종교행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의례문이나 경전은 한글로 정착시켜 음원을 만들어 보급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 인천아시아게임 선수촌 방문

9월 19일 개막한 2014 인천아시아게임에서도 불자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가장 두드러진 성적은 낸 것은 펜싱이다. 사실 이번 아시아게임에서 펜싱은 한국의 펜싱사를 새로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한국 펜싱 대표팀은 당초 7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했으나 선수들의 노력으로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일궈냈다. 이 중심에는 불자선수들의 ‘금빛 찌르기’가 있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직책 부실장 스님들은 9월 22일 인천 아시아게임 선수촌에 마련된 불교관을 방문해 펜싱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구본길 선수와 파이팅을 외쳤다. 이날 불교계 주요인사 40여 명이 인천 아시아게임 경기대회 선수촌 및 계약체육관을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단을 격려했다. 방문단은 오전에는 선수촌 한국선수단을 방문해 양학선 체조선수와 21일 금메달을 딴 구본길 선수를 만나 단주를 주면서 격려했다. 또한 불교관을 방문해 예불을 올리고, 유적품 인천시장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차담을 나눴다.

## 인천아시아게임, 불자 선수 ‘金·金·金’

9월 19일 개막한 2014 인천아시아게임에서도 불자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가장 두드러진 성적은 낸 것은 펜싱이다. 사실 이번 아시아게임에서 펜싱은 한국의 펜싱사를 새로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한국 펜싱 대표팀은 당초 7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했으나 선수들의 노력으로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일궈냈다. 이 중심에는 불자선수들의 ‘금빛 찌르기’가 있었다.

참가해 ‘자랑스러운 불자 선수상’을 받기도 했다.  
불자선수가 나란히 금·은을 놓고 맞붙은 경우도 있었다. 이라진·김지연 불자선수는 여자 펜싱 사브르 단체 금메달을, 개인전에서는 이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한국 펜싱 대표팀은 당초 7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했으나 선수들의 노력으로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일궈냈다. 이 중심에는 불자선수들의 ‘금빛 찌르기’가 있었다.

“미녀검객”에서 ‘주부검객’이 된 남현희 불자선수는 여자 펜싱 플뢰레 단체전 금메달을, 가수 왕배의 연인으로 알려진 전희복 불자선수는 여자 펜싱 플뢰레 개인·단체 금메달을 획득해 2관왕이 됐다. 특히 돈독한 불심으로 잘 알려진 남현희 선수는 지난 2010년 광주아시아인 게임 이후 열린 불자 선수 환영식에

심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고, 구본길 선수와 맞붙은 개인전에서는 석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비운의 검객” 신아람 불자선수와 최인정 불자선수는 여자 펜싱 에페 단체전에서 중국에게 아쉽게 저 은메달을 따냈다. 또한 최인정 선수는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지난해 도핑 테스트 파문으로 마을 고성을 했던 배드민턴의 이용대 불자선수는 단체전에서 금빛 스매싱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이용대 선수는 불교 법회에도 자주 모습을 비추는 등 돈독한 불심을 자랑한다.  
독실한 불심을 지닌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자가 된 체조의 양학선 선수는 허벅지 부상의 여파로 도마에서 아쉽게도 은메달에 머물렀다.

## 템플스테이 내년 예산 6% 증액된다

문체부, 2015년 예산안 발표... 오대산 명상센터 건립도

한국의 대표 전통문화관광 콘텐츠인 템플스테이의 내년도 예산이 6%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문화 재정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통문화체험 지원’ 분야의 템플스테이는 내년 292억여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전년도 대비 약 6% 증액된 금액이다. 이를 통

해 불교계는 사찰음식관광자원화, 템플스테이 특화프로그램 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제23회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오대산 명상센터도 건립이 가시화된다. 문체부는 현재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 예산에 4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오대산 월정사와 평창군은 오대산 일대를 자연명상특구로 지정해 이

### 108! 그 뜻 깊은 불심(佛心)을 모아 동국의 ‘새 미래’를 세웁니다

글로벌 명문대학을 향한 동국의 새 비전이 펼쳐집니다. 108년 역사의 큰 뜻을 담은 첨단 랜드마크가 됩니다. 2천만 불자와 25만 동문의 자부심이 될 인재불사(人才佛事)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동국대학교 건학108주년기념관 건립불사 선포 및 후원의 밤**

- 일시 : 2014년 10월 8일(수) 저녁 7시
- 장소 : 그랜드 엠베서더호텔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 행사문의 : 02-2260-3794~5

건학108주년기념관 건립기금 기부 참여 방법 안내

- 약칭 방법 : FAX / E-mail / 전화 / 방문 약정 후 입금해 주십시오.
- 입금방법 : 무통장 입금 / 자동이체 (CMS) / 급여공제 중 선택
- 신원은행 140-000-649193 (예금주 : 동국대학교)
- 국민은행 9-9999-3333-49 (예금주 : 동국대학교)
- 대외협력본부 연락처 : 전화 02-2260-8992-4 / FAX 02-2260-3796 / E-mail libovedgu@dongguk.edu

건학 108주년  
변화의 혁신의 동국대학교